

알기쉬운 건축사진 촬영법

Easy Camera Technique for Architecture



임정의 / 사진가
by Lim, Chung-eui

약력

- 청암건축사진연구소 대표
-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건축에서 빛과 공간의 만남

필자는 사진을 시작한 이래 사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서 빛을 이용한 작업을 이어왔다. 사진은 한마디로 빛으로 만들어지는 예술이라고 말한다. 그중에서도 필자는 건축과 인연이 되어 30여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부동의 자세로 움직일 수 없는 건축의 공간들을 사진에 담아온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축물들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도시와 건축물들을 카메라에 담는 작업이란 한마디로 빛과 공간의 만남이었다.

사진이 빛이면 건축은 공간이다. 빛이 없으면 사진으로 찍을 수 없듯이 빛이란 너무도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빛은 건축물들에서 보듯이 빛을 이용한 건축계획이나 내부공간들의 설계나 디자인에서 가장 많이 응용되는 중요한 부분들이다.

20세기 최고의 예술가인 르 코르뷔제(1889~1965)는 짧은 시절, 새로운 건축철학을 엮은 그의 책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

에서 “건축이란 빛 아래에 집합된 여러 입체들의 교묘하고 정확하며 장려한 연출” 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벽과 벽 사이의 한정된 공간에서 빛의 연출은 그의 모든 작품의 주제가 되었고 그의 작품중에 1950년경에 지어진 ‘룡상성당’ 과 ‘라 투레트 수도원’ 에서 빛과 공간의 조화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 룡상성당의 내부공간에서 보여 주듯이 거대한 벽면들을 통한 외부의 빛을 끌어들이며 여러 가지 모양의 연출은 한마디로 빛으로 빛은 장엄한 미사곡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 리옹에 있는 르 코르뷔제의 작품인 라 투레트 수도원에서 느껴지는 것 중의 하나는 외부로 부터 들어오는 빛과 공간의 조화들은 건축예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유럽건축 여행에서 이곳을 찾아 방문했던 기억 중에서 오후 늦게 수도원에 도착한 날의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칙칙같이 어두운 밤과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까지 주변의 목장들과 어울려진 초원의 들판과 함께 자연 속에서 보낸 일들은 기억 속에서 사



1. 육군사관학교 도서관 로비 아트리움 2. 통상성당 벽면창 3. 통상성당 내부 톱라이트

라지지 않는 일이다.

빛의 여러 가지 형태들은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 일찍부터 해가 저무는 저녁 무렵까지 자연의 오묘한 진리들을 읽을 수 있었다.

현대건축의 흐름은 르 코르뷔제의 지극히 ‘조작된 빛’에서 이제 루이스 칸(19010~1974)의 빛의 예술로 바뀌어 지면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루이스 칸은 그의 건축에 대하여 위대한 시인의 “당신의 집에는 어떤 종류의 빛을 지니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건물의 벽에 태양이 부딪히기 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이 건물이 항상 새로운 경이에 가득 차 있음을 압니다 매일 매일 다른 빛의 변화에 따라 어느 날 푸른빛은 그날만의 푸른 빛이고 다른 날의 그 푸른빛은 또 다른 그날만의 빛입니다. 아무것도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만의 색깔인 전기 불빛은 단지 하나의 느낌만을 당신에게 보여 주지만 태양의 빛은 하나의 질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집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시간의 순간순간의 횡수 만큼이나 많은 그때그때의 새로운 분위기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 집이 건물로 남아 있는 날까지 하루하루의 날들은 다른 새로운



4. 라투레트 개인기도실 5. 라투레트 지하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건물들은 그냥 존재만 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무심히 이용할 뿐이지만 움직이는 태양에 따라 그 색깔이 달라진다.

필자의 건축사진 여행에서 미국 달라스에 있는 루이스 칸의 김벨 미술관 작품에서 잊지 못할 것 중에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빛의 흐름이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김벨미술관 주변에서 관찰하며 여러 사진들을 찍었지만 우연하게도 정오 12시경에 반 원통형 틈사이로 비쳐 들어오는 빛과 공간의 조화는 너무나 멋진 작품사진이 되었다.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자연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르 코르뷔제와 루이스 칸의 작품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계의 유명한 건축사들의 디자인의 요소 중에 하나인 빛의 연출방법은 공통된 부분일 것이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주거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오피스공간이나 문화시설 종교시설 등 여러 분야에서 빛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한국의 여러 건축사들이 좋아하는 일본의 건축사 안도 다다오의 건축에서도 빛과 공간의 조화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그의 작품 중에 하나인 “빛의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내부의 조그마한 실내공간의 분위기는 외부의 빛을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건축물들을 볼 때 한결같이 느껴지는 것은 빛과 공간의 조화를 어떻게 잘 처리해 주느냐에 따라 그 건물들로 하여금 생동감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다.

우리의 전통건축에서 보여 주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어지는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는 자연과 빛의 만남은 그동안 건축사진을 찍으면서 느껴지는 감정이며 체험이다.

하루의 빛의 변화 그리고 계절에 따른 빛의 변화들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려는 선조들의 지혜롭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사진작업을 하며 지내는 동안 빛은 나에게서 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겠지만 자연이란 항상 좋은 날씨와 좋은 빛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비가 올 때도 있을 것이고 태양이 지고 어두운 밤이 올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실내공간도 있을 것이다.

그만큼 빛을 이해하고 빛을 잘 이용한다면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빛의 종류에는 태양과 같은 자연광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인공광이 있다.

필자는 가끔 인공광을 이용한 실내촬영도 간혹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와 연구도 필요하다.

사진의 본질은 사실을 진실 되게 보여 주지만 사진은 찍는 사람에 따라 잘못 표현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자연의 빛은 이른 아침과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무렵에는 푸르게 혹은 붉게 보여진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형광등이나 백열등 아래에서는 녹색이나 붉게 잘못 표현되지만 자연광만큼 자연스럽게 색깔들을 잘 표현해 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건축에서 빛과 공간의 조화는 건축을 계획하는 과정에서부터 빛의 역할은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인식할 필요가 된다. ■